

3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실적+ 지표+ 국채 선행... [다우: 7,924.56pt (+ 2.25%)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의 실적이 월가 전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추가 랠리에 불을 지폈고,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음.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3%로 하향 확정됐지만 월가 전망은 넘어섰고,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 8주째 60만명을 상회했지만 월가 전망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 전날 제기된 경기 바닥론이 지속되었음. 재무부의 7년물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경기부양 채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투자심리를 지지했음.
4Q GDP -6.3%로 하향 확정... 26년 최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6.3%로 하향 확정되었음. 상무부는 4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치 -6.2%에서 -6.3%로 하향 확정됐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26년만에 최저치 수준임. 그러나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6.7%보다는 적은 감소폭임.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 2007년 4분기 -0.2%로 경기후퇴기였던 지난 200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플러스(+)권을 유지했음. 그러나 3분기와 4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기술적인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에 접어들었음.
신규실업수당청구 8주째 60만명 상회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는 8주 연속 60만명을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했음.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는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21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8,000명(계절조정) 증가한 65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8% 많은 수준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와 일치함.
7년물 국채 발행 성공.. 부양채원 조달우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국채 7년물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전날 제기된 경기부양 채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음. 이날 진행된 240억달러 규모의 국채 7년물 입찰 결과 낙찰 금리는 2.384%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예상치에 부합했고, 입찰 경쟁률도 2.52대 1로 지난달 26일 진행된 7년물 입찰 경쟁률인 2.11대 1을 넘어섰음.
유가 장중 올들어 최고 [WTI: \$54.35 (+\$1.58)]	국제 유가는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장중 올들어 최고치에 올라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58달러(3%) 오른 54.35달러로 마쳤음. 이날 유가는 장중 한때 54.66달러까지 치솟아 지난해 11월2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올해 들어서 22% 증가한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한-칠레 FTA로 5년새 교역량 4.5배 증가	코트라(KOTRA)가 26일 발간한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교역량은 71억 5,800만달러로 2003년 15억 7,500만달러에 비해 454% 증가.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 칠레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 2003년엔 5억 4,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8년엔 10억9,600만달러를 기록.
日 '잡세어링' 기업에 1 인당 최대 45만엔	후생노동성은 25일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의에서 추가 고용대책으로 잔업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감원을 줄이는 '잡 세어링'을 도입한 기업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최대 연간 45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
日 정부·BOJ, 기업자금 지원 추가 조치 모색	BOJ는 신용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장기국채 매입에 이어 후순위채 매입까지 결정한 상태. 그러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도 불구하고, 매입 대상이 일부 상위신용등급의 만기가 짧은 채권에만 제한되면서 위험자산 인수는 물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혜택이 제한됐다는 평가. 따라서 일본 정부는 4월1일 시작되는 2009년 회계연도에 맞춰 빠르면 이달 말 쯤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2월 회사채 발행 급증 ...주식은 '뚝'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액은 10조157억원으로, 전월의 10조151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음. 반면에 회사채 발행액은 9조787억원으로 전달 8조4,450억원보다 7.5% 증가. 회사채 중에서도 금융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일반회사채 발행액이 7조7,232억원으로 전달 4조8,602억원에서 58.9%나 급증.
정부, 은행외채 지급보 증 1년연장 추진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연장하고 국내 투자자가 국내 은행이 발행한 외화채권을 살 때도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음.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
KT 주식매수청구 비용 최대 1조 예상	26일 증권업계 및 KT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KT-KTF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KT와 KTF 주식수는 증권사에 위임한 주식과 개인 주주를 합쳐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수의 10%와 12% 미만인 것으로 파악. 합병반대의사는 27일 주총까지 통지할 수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